



# 휘발유가격 인하

**油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精油 등 국내 정유5사는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과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휘발유가격(세전공장도)을 2.4% 인하했다.

油公(대표 金恒德)은 지난 12월 3일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2.4% 인하했으며, 이어 湖南精油(대표 具斗會), 京仁에너지(대표 成樂正) 雙龍精油(대표 張錫煥), 極東精油(대표 崔東奎)도 12월 4일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油公, 湖油, 京仁, 極東 등의 휘발유가격(세전공장도)은 ▲보통휘발유의 경우 ㄹ 당 1백 92원 49전에서 1백 87원 87전으로 ▲무연휘발유는 ㄹ 당 2백 6원 82전에서 2백 1원 86전으로, ▲고급휘발유는 ㄹ 당 2백 49원 54전에서 2백 43원 55전으로 각각 내렸다.

이번의 휘발유가격 인하는 지난 9월 1일 정부의 휘발유·등유가격 자유화조치때 발표된 가격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中東원유(두바이·오만) 평균가격이 지난 10월의 배럴당 19달러 18센트에서 11월에 18달러 62센트로 2.92% 내렸고, 또 월평균 환율은 지난 10월의 7백 53원 26전에서 11월에 7백 57원 55전으로 0.57% 올라서 휘발유 국내기준가격의 인하요인이 2.37%로 산정되었으나 2.4% 인하한 것이다.

한편 등유의 경우는 지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가격인상요인이 남아 있으나 정부의 월동기 민생용 석유제품의 가격동결방침에 호응하여 가격인상을 계속 유보키로 하였다.

이번 휘발유가격 인하에 관한 정유5사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油公〉



油公(대표 金恒德)은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 및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91.12.3. 0:00시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2.40% 인하·시행키로 함.

-보통휘발유: 조정전 192.49원/ㄹ

→조정후 187.87원/ㄹ

-무연휘발유: 조정전 206.82원/ㄹ

→조정후 201.86원/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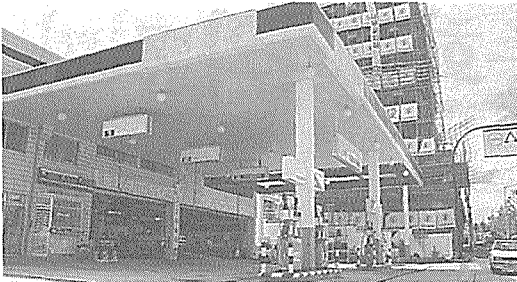
-고급휘발유: 조정전 249.54원/ㄹ

→조정후 243.55원/ㄹ

이번 휘발유 가격인하는 지난 9월 1일 정부의 가격자유화조치시 공표된 가격관리지침을 따랐으며, 그 구체내역은 中東원유(Dubai & Oman) 평균가격이 10월 19.18\$/B에서 11월 18.62\$/B로 2.92% 내렸고, 월평균 환율은 10월 753.26원에서 11월 757.55원으로 0.57% 올라서 휘발유 국내기준가격의 인하요인이 2.37%로 산정되었으나 2.40% 인하 조정키로 함.

등유의 경우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여전히 가격인상요인(+5.66%)이 남아있으나, 정부의 월동기 민생용 석유제품의 가격동결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계속 인상을 유보키로 함.

〈湖南精油〉



湖南精油(대표 具斗會)가 4일 0시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 가격을 2.4%인하했다.

湖油에 따르면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9.18달러에서 18.62달러로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달러당 753원 26전에서 757원 55전으로 변동하여 2.37%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무역휘발유는 1당 206원 82전에서 201원 86전으로, 보통휘발유는 192원 49전에서 187원 87전으로 2.4%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등유가격은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있으나 민생용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에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京仁에너지〉



京仁에너지(대표 成樂正)은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 및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91. 12. 4 00:00시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2.4%인하시행키로 함.

- 보통휘발유: 현행 192.49원/L → 조정 187.87원/L
- 무연휘발유: 현행 206.82원/L → 조정 201.86원/L
- 고급휘발유: 현행 247.57원/L

이번 가격조정은 지난 9월 1일 정부의 휘발유 가격자유화시 공표된 가격관리지침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그 구체내역은 中東原油(Dubai & Oman) 평균 가격이 10월 19.18\$/B에서 11월 18.62\$/B로 2.92% 하락하고 월평균 환율은 10월 753.26원/

US\$에서 11월 757.55원/US\$으로 0.57% 상승하여 인하요인은 2.37%로 산정되었으나, 2.4% 인하 조정키로 함.

한편 등유의 경우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월동기 민생용 석유제품의 가격동결 권고에 호응하여 인상을 유보키로 함.

〈雙龍精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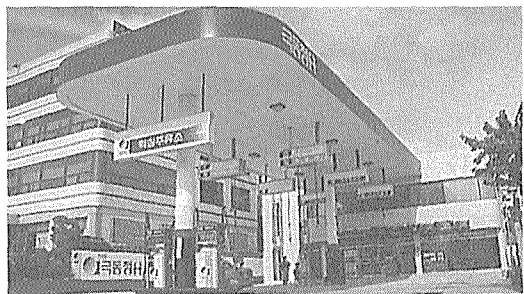


雙龍精油(대표 張錫煥)는 휘발유 세전공장도가격을 '91년 12월 4일 00시부터 다음과 같이 인하시기로 결정하여 거래처에 통보함.

— 세전공장도가격 조정내역 (단위: 원/L)

	조정 전	조정 후	조정율(%)
무연휘발유	206.74	201.78	△2.40
보통휘발유	192.13	187.52	△2.40

〈極東精油〉



極東精油(대표 崔東奎)는 '91. 12. 4일 0시부터 휘발유 판매가격(세전공장도)을 2.4% 인하시키로 함.

\* 휘발유 가격(세전공장도) 인하내역 (단위: 원/리터)

	조정 전	조정 후	차 이
고급휘발유	247.63	243.55	△4.08
보통휘발유	192.49	187.87	△4.62
무연휘발유	206.82	201.86	△4.96



# 제90차 OPEC 총회결과와 전망

지난 11월 26일부터 빈에서 열린 제90차 OPEC (석유수출국기구) 총회는 예상대로 상식적인 결과를 남기고 폐막되었다. 이번 총회는 내년 1/4 분기의 생산쿼터를 현행 2천3백65만B/D, 최저참고가격도 현재의 배럴당 21달러 (7유종 평균) 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4분기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OPEC 쿼타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모든 OPEC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어 내년 1/4분기 쿼타문제는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다. 즉 OPEC이 최대공급능력으로 생산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OPEC 대응전략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1/4분기 생산상한을 현재의 2,365萬b/d로 연장적용한다는 것은 형식상의 합의일 뿐 실재는 모든 OPEC 회원국이 생산능력껏 생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는 내년 2/4분기 과잉공급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 및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표-1〉 '90차 OPEC 총회 결과

### 합의 내용 요약

- (1) 내년 1/4분기 OPEC 생산상한은 금년 9월 OPEC 감시위에서 결정한 현재의 2,365萬b/d를 그대로 연장 적용함.
- (2) 내년 2/4분기 생산상한은 내년 2월 OPEC 감시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3)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OPEC 의장은 감시위 이전이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 (4) 21 \$/B OPEC 기준가 목표달성을 포함한 '90년 7월 OPEC 총회의 합의내용을 재확인함.

금년 1/4분기의 경우는 OPEC이 최대로 공급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OPEC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2/4분기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2/4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하게 된다. OPEC 사무국이나 경제위원회는 2/4분기 약 23,000만b/d의 對OPEC 수요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OPEC 공급은 현재의 2,400만b/d 수준에다가 쿠웨이트 공급증대분(7월까지 100만b/d)을 포함하고 이라크 공급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잉여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란·알제리 등 강경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실효성있는 감산대책 수립의 논의를 주장한 반면, 사우디 그룹은 2/4분기 수급상황은 현재 상황에서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사우디는 한 술 더 떠서 현재의 산유량을 고수할 것이라 천명하면서 '95년까지 산유량을 1,00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킬 것을 발표해서 시장심리를 냉각시켰다.

이러한 대립과정에서 양측은 내년 2/4분기 문제는 2월 12일 감시위에서 본격 논의하며,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감시위 이전에도 OPEC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로서는 기존의 생산고수자세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여 2/4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며, 다만 대응

방안 논의는 감시위에서 하자고 후퇴한 반면, 여타 산유국들도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또 공동성명 문안에 「'90년 7월 총회의 합의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표-2〉 '90년 7월 87차 OPEC총회 결과

합의내용요지

- (1) 금년 연말까지 생산상한을 2,250만b/d로 하고 이를 금년 연말까지 적용
- (2) OPEC 기준가는 21\$/B로 3\$/B 인상
- (3) 향후 생산상한증대시 생산능력이 쿼타에 미달하는 국가의 쿼타를 잉여생산능력이 있는 국가에게 재배분
- (4) 감시위원회를 확대, 생산감시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  
1小委: 알제리,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2小委: 가봉, 이란,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 (5) 유가가 OPEC 기준가 이상으로 상승될시는 생산상한과 기준가를 균형있게 증대시켜 나갈.
- (6) 차기 총회에서 계절적으로 수급을 조정하는 문제를 다룰 것임.

일부 산유국들은 내년 2/4분기 수급대책이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90년 7월 OPEC 합의 사항이 2/4분기 대책논의시 하나의 준거(refernce)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사우디가 이러한 문항을 공동성명에 삽입한 것은 알제리 등 일부 산유국의 불만을 반영한 어구 정리(Wording) 이상의 의미를 가질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것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87차 OPEC총회를 되돌아켜 보면, 이라크가 쿠웨이트 등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진 반강제성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기저에는 高油價를 위한 이라크의 강압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재의 사우디에게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1\$/B 기준가 목표에 대해서는 사우디도 만족해하고 있다. 이미 유가가 걸프사태를 거치면서 한단계 level-up 되었을 뿐아니라 실질유가기준으로 할 경우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우디의 저유가 M/S 확대정책이나 대체에너지 경쟁적 관점에서 보아도 합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생산상한이나 국가별 쿼타배분에서 「생산능력」의 개념을 그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최대매장량 및 최대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사우디로써는 매우 바람직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금년 2/4분기의 경우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타 산유국이 잉여생산능력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수요증대분의 대부분 배분은 자연스럽게 사우디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원칙을 따를 경우 내년 2/4분기의 경우도 사우디의 감산 필요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3)項의 원칙에 의하면, 이라크, 쿠웨이트의 쿼타 부족 공급물량은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한 사우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공급재계물량을 50~100만b/d로 가정 하더라도 쿠웨이트를 포함 총 OPEC공급은 2,500~2,600만 b/d 수준이 되는 반면, 對 OPEC수요는 2,300만b/d에 달해 200~300만b/d 정도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나 비수기 재고증가 패턴을 고려하면 사우디의 감산 필요폭은 100만b/d 이하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2/4분기 수요대책을 위한 봄철 OPEC 監視委를 통상보다 1개월 빠른 2월에 조기 예정해둠으로써 2/4분기 유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장전망

이번 총회의 형식적인 결론은 이미 시장에서 모두 예견되었던 것으로 총회결과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못된다.

그러나 총회전부터 제기된 2/4분기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는 사우디가 지난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총회전 유가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년 2/4분기 과잉공급 우려를 배경으로 2\$/B이나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총회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과잉공급우려가 더 이상의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2/4분기를 어렵게 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보다 심층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2/4분기를 어렵게 보는 시각의 배경은 이라크·쿠웨이트 공급재개가능성,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蘇聯 공급불안, 전반적인 수요증대, 사우디의 시장정책 등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OPEC의 수요추정에 따르면 2/4분기 對 OPEC 수요는 약 2,300만b/d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은 쿠웨이트의 경우 50만b/d증대가 확실시 되지만, 이라크의 경우는 매우 불확실하다. 또 설사 이라크의 공급재개가 이루어져도 100만b/d 이상의 대폭적인 공급재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OPEC공급은 2,500~2,600만b/d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적인 잉여물량은 200~300만b/

d에 달한다.

그러나, 2/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인 점과 통상적 재고증가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잉여물량이 유가폭락을 가져올 정도는 못된다. 또, 예상대로 1/4분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1/4분기중 상당한 재고방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공급흡수여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4분기 수급대책의 Key를 쥐고 있는 사우디가 무대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사우디가 부분적인 감산이나 해상재고를 활용한 공급조절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 유가하락의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내년 2/4, 3/4분기 비수기 및 이라크, 쿠웨이트 공급재개등으로 인한 과잉공급, 유가하락의 개연성은 높으나, 일부 분석가의 견해처럼 대폭하락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년 2/4분기 유가는 두바이 15~16\$/B 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석유개발공사, 주간석유뉴스〉

## ■ 용어해설 ■

# 로열티

특허권과 저작권 또는 공업소유권등의 사용료를 로열티(Royalty)라고 한다.

흔히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면 그 권리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로열티라고 말한다. 로열티는 국제 수지상 무역외수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촉진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확대되고 상표도입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업체들의 로열티 지불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술도입기간도 5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고 대가지급도 매출액의 5%이상으로 고액화하는 경향이다.

그뿐 아니라 국제무역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외국의 선진업체들이 특허를 무기화, 로열티압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받게되어 이를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로열티의 개념에는 저작권의 印稅나 연극·영화·예술작품의 상연료, 광산·광구의 사용료등이 포함된다.